

대원불교 소개
대원정사 대작불사
 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불야 정진기도 (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포교 마당이 넓어진다

조계종 포교사 고시 공무원·장군·교사 출신 등 대거 '합격'

지역·계층 분포 다양... "전방위 활동 기대"

지역별·분야별 포교가 보다 넓고,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조계종 포교원이 발표한 제9회 포교사 고시 최종 합격자 발표 결과 합격자들의 지역별·계층별 다양화가 두드러져 향후 포교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406명이 응시해 349명이 최종 합격한 국내 합격자 현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31명이 합격한 강원지역의 약진이다.

'31명 합격'은 전통적으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해온 서울(87명) 부산(75명) 대구(38명)에 이어 네 번째에 해당하며, 현재 포교사단에 소속돼 있는 강원지역 포교사 숫자 33명과 맞먹는 숫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만성적인 포교인력 부족에 시달려온 강원지역 포교 담당자들은 지역 포교 활성화는 물론 서울·경기지역 포교사단에 속해 있는 강원지역 포교사단의 독립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원주불교대학(학장 원행) 부학장 최상순 법사는 "군부대가 밀집돼 있는 강원지역에서는 군 포교가 어느

지역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군 포교는 엄두를 못내고 있다"며 "팀을 조직해 활동할 수 있게 되면 보다 넓은 분야에서 깊이 있는 포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행 현장의 최전방을 지킨다고 할 수 있는 사찰 종무원들의 합격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는 김지홍(34)씨를 비롯해 남자 종무원 4명과 여자 종무원 2명 등 모두 6명이 합격했고, 전북불교회관 버스타기사인 김귀경(35)씨도 이번에 합격했다. 김병우(46)씨 역시 지금까지 합격자 명단에서 쉽게 이름을 볼 수 없었던 속초 신홍사 사무장 소임을 맡고 있다.

김 사무장은 "종무원 일이란 게 신도들과 직접 맞닥뜨려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먼저 체계적인 공부와 언어야 포교를 잘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포교사고시에 응시했다"며 "가급적이면 종무원들뿐 아니라 산하 복지시설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 스스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위 사회적 여론 주도층이라 할 수 있는 전·현직 고위 공직자나 은퇴한 우수 인력, 현직 교직자의 강세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군 법당 시주와 관련해 불명에 전역한 뒤 명예회복을 위해 법정 투쟁을 해왔던 김태복 육군 소장(58)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불리비아 대사 를 역임했던 김상철(65)씨도 보인다. 1차 필기시험 최고득점의 영예를 안았던 김성재(53)씨는 현재 서울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장으로 재임하고 있고, 동서울집중국어에 근무하는 문희영(51)씨는 서울제신청에서 올해의 우편소통유공자로 뽑혔던 인물.

경북농업기술원에서 농업연구관으로 있는 정상환(62)씨와 국방부 국방정신교육원 교수를 역임한 통일부 통일교육전문요원 박철원(59)씨도 합격자 명단에 보이는 이름이다.

포교원 포교사고시 담당자 최영씨는 "예전과 달리 포교사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지역과 사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단순 지식 측정보다 실제 신행 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된 것도 다양한 계층과 연령에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포교인력이 대거 합격한 원인이 것 같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태안 마애삼존불.



새해 큰 뜻 이뤄지소서

서울 조계사(주지 지홍) 신도들이 1월 1일 2004년 갑신년을 맞아 대웅전 앞마당에서 자신의 발원을 담은 서원지를 달며 더 열심히 신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태고종 '종로시대' 연다

3월 사간동 법륜사에 새 청사 기공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올해 서울 종로구 사간동 법륜사에 새 터전을 마련해 '새 청사 시대'를 연다고 한다. 불교조계종으로 있던 60년대 태고사현 조계사에 총무원을 둔 이후 40여년 만에 종로에 다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태고종은 총무원이 들어설 전통 불교문화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3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올 3월 착공해 연내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한다.

전통불교문화지원센터가 완공되면 태고종은 제2종단의 위상에 걸맞는 종합적인 신행문화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과의 거리가 1km에 불과해 새 이웃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미 양 종단이 분구 마무리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로 설계가 진행 중인 전통불교문화지원센터에는 태고종 총무원, 중앙종회, 중앙호법위원회 등 중앙총무기관과 신행단체 등이 입주하게 된다. 이 외에도 대법당, 대회의실, 전시실, 공양간, 주차장, 설비실 등 주·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전통불교문화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종단 발전을 견인하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현대불교 지면 새로워졌습니다

- 지상백고좌 업그레이드 1면에 '할' 신설, 25면에 평생 수행법 소개
- 지상 캠페인 '한국불교 달라져야 한다' 2면에 매주 1개 주제씩 제안
- 비구니 스님 활동 집중 보도 4면에 한국의 비구니 연재.
- 더 크게 쓰는 불자의 눈 독자 참여 확대, 눈썰미원 기명 사설 - 15면
- 네티즌 교리문답 핫뉴스와 연동한 교리문답 코너 - 20면
- 더 진한 감동, 부처님 감사합니다 신행 후기 연중 공모 및 소개 - 23면
- 주말이 즐겁다 주말정보 페이지 대폭 확대 - 26면

<새연재>

- 조태호 선만화 '주정자 따라' - 20면
- 안양규교수의 경전이야기 - 24면
- 자재만현 스님의 염불선 이야기 - 18면
- 이재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 31면

보물서 국보로 '승격' 예고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태안 마애삼존불

영국사 후불탱 등 보물지정도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보물 제48호)과 '태안 마애삼존불'(보물 제432호)이 국보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지난해 12월 30일 현재 보물로 지정돼 있는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과 '태안 마애삼존불' 등 2건을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영국사 영산회상 후불탱'과 '중원봉황리마애불상군'도 보물로 지정 예고 했다.

문화재청은 지정 예고 사유에서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은 항마족지인(降魔觸地印)·아미불 굴

북시키는 상징으로 결가부좌 자세에서 오른손을 땅에 댄 손 모양을 하고 법의를 걸친 모습이 기본적으로 통일신라 불상의 전통을 잇고 있으며, 통일 신라에서 고려시대로 이행해가는 변화과정을 잘 보여주는 고려 전기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밝혔다. '태안마애삼존불'에 대해서는 "불신의 허반부가 노출돼 백제 연화대화가 확인됨으로써 도상적 가치가 더욱 돋보인다"며 "6세기 중반경 중국 북제양식 불상과의 영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지정 예고 사유를 밝혔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12일 종무기관 입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조계종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차 공사가 1월 10일 마무리된다.

현 조계종 총무원 바로 옆 자리에 위치한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연건평 5천 평에 지상 4층, 지하 4층 규모로 불교중앙박물관, 불교예술공연장, 불교문화정보센터, 멀티미디어 라이브러리, 불교음악실, 행정업무 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총무원을 비롯한 중앙 종무기관들은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차 완공과 함께 12일 이곳에 입주할 예정이다.

현 총무원 청사는 종무기관들이 입주한 뒤 곧바로 헐리면서 별관 공사가 시작되며, 이 자리에는 국제회의장과 전통문화예술 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할'

오래된 돌덩이야
보기에 좋지만...

이놈의 몸뚱이 어디에...

佛甲寺

썩어 사라지고... 지은업만 남아요

그림·조태호

- 수산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西翁大宗師 舍利 親見法會

백양사 진동 다리식은 지하 1m 깊이로 땅을 판 뒤, 그 한 가운데 명당수(明堂水)를 2/3정도 채운 항아리를 안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항아리는 입구를 한지로 막고 뚜껑을 덮은 뒤, 기와와 황토를 덮고, 그 위에 다시 큰 돌과 황토를 덮은 다음, 다시 기와를 덮어 마무리 합니다. 따라서 항아리는 한지와 뚜껑, 기와와 황토, 큰 돌로 완전 밀봉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밀봉된 항아리 안에서 사리가 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다리가 열리고 그 항아리 안에서 백옥빛의 영롱한 사리 4과가 출현하였습니다.

이는 현대과학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희유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큰 스님의 범구에서도 많은 사리가 수습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4과와 사리는 큰 스님의 깊은 수행과 큰 자비를 증명하는 결정체로서 우리 앞에 닥친 것입니다. 고불총림 대당사는 이 희유한 사리를 공양하는 공덕을 사부대중에게 회향하기 위해 사리천건법회와 사진전을 열려고 하오니 사부대중께서는 수회 동참하시어 무량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大韓佛敎曹溪宗 古佛叢林 白羊城

● 사리천건법회 : 일시 - 2004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 장소 -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수행관 / 공개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서용당 상순대중사 49재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막제 - 1월 30일 ● 서용 큰스님 사진전 : 일시 - 2004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장소 -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수행관